

나비축제에 '합평 특산물' 12억 매출

30만 관광객 다녀가 한우 등 판매 수익 창출

입장료 쿠폰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 혜택 늘어

올해 합평 나비축제 입장료 순수입은 쿠폰발행으로 줄었으나 농특산물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평군은 "지난달 29일부터 10일 까지 합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합평 나비축제'에 29만 4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 7억6000여만원의 입장료 수익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합평천지 한우, 나르다, 음식점, 체험장, 추억의 장터, 할머니 장터 등

행사현장에서 군민 등이 직접 운영한 농·특·축산물 판매장의 매출은 12억 여원에 달했다.

군은 행사기간이 5일 길었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관광객 수는 비슷하지만 입장료 매출은 1억여 원이 더 증가했고, 행사현장 각종 판매매출은 4억여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해에 없던 쿠폰을 발행해 입장료로 들어온 총 7억

6000여만원에서 쿠폰제공 3억4000여만원을 공제하면 입장료 순수입은 4억1000여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7일간 대회개최에 쿠폰없이 30여만명의 관광객과 6억 8000여만원의 입장수입이 들어왔고, 올해에는 12일 동안 29만4000여명의 관광객과 7억6000여만원의 입장료가 들어왔다.

이중 쿠폰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3억4000여만원에 달해 입장료 순수입은 지난해보다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들이 사용한 쿠폰들은 대부분 축제장내의 농특산물판매 및 각종 판매장 및 음식점 등에 사용됐다. 성

인 입장권(7000원)에는 3000원의 쿠폰이 붙어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개설한 식품산업관의 한우판매 등 매출은 총 3억4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올해 합평나비축제는 쿠폰 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수익 창출을 위해 대폭 개선한 흔적의 결과로도 보이고 있다

합평군 관계자는 "그동안 나비축제를 성원해 준 관광객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축제쿠폰을 도입하는 등 관광객들준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고 더욱 완성도 높은 나비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진도 꽃게 kg당 3만원

지난 8일 진도 서양항 수협공판장에서 어민들이 위판에 앞서 꽃게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있다. 꽃게 경매가는 kg당 3만원선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팔도 아리랑 체험하세요

진도 테마 관광지 '아리랑 마을' 16일 개장

진도군이 오는 16일 진도 아리랑을 주제로 한 테마 관광지를 개장한다. <사진>

'진도 아리랑마을 관광지'(이하 아리랑 마을)는 임회면 상만리 일원 11만1180㎡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아리랑 체험관을 비롯해 흥주촌, 놀이마당, 장미공원 등의 문화 체험시설 등을 갖췄다.

'아리랑 마을'은 예향 진도의 대표적 문화자원이자 우리 민족의 얼이 서린 진도아리랑을 비롯 전국의 팔도 아리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문화시설로 조성됐다.

특히 아리랑 체험관내에는 전국의 주요 아리랑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야기 팔도 아리랑 전시실'이 마련됐다.

또 아리랑의 역사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아리랑 문헌·영상·유물 등을 전시한 역사 아리랑 전시실, 진도아리랑의 유래와 진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진도아리랑 전시실, 노래아리랑 체험실 등이 있다.

'이 밖에 8동의 한옥으로 이루어진 '진도 흥주촌'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진도군의 민속주인 진도 흥주의 제조체험 과정과 전국의 주요



전통주를 소개하고 조선시대 선비와 자녀들의 생활도 체험할 수 있다.

섬지공원에는 진도 흥주모양의 연못과 흥주 관련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다.

이동진 군수는 "최근 가족중심의 관광패턴에 맞춰 진도군의 독특한 문

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며 "'아리랑 마을'이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팔도 아리랑의 문화 거점이자 인근에 있는 남도국악원과 함께 남도 문화예술의 산실로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경기자 hypark@

짜지 않고 구수한 다시마차 나온다

수산과학원 개발 이달 출시 다시마 생산어가 소득 기대

건강식품인 다시마를 원료로 한 차(茶)가 새로 개발돼 전국생산량의 96%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다시마 생산어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국립 수산과학원은 "수산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 (주)해오름 바이오와 공동으로 다시마차 개발에 성공해 이달중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오는 19일 창립 9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다시마차 시음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존의 다시마차는 너무 짜고 해조향이 강하거나 각종 조미료가 들어있어 다시마 고유의 맛을 즐기기에 부족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탈염기술을 이용해 짜지 않고 구수하며 다시마의 유용성분이 짧은 시간에 물에 녹는 장점을 갖췄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현장으로 기술개발 일환으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시마차 개발·상품화에 성공했다. 다시마는 식이섬유, 요오드, 푸코이단 등 각종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비만예방, 항암,

혈압조절, 배설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다시마차의 개발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다시마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연간 50여 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다시마 생산량은 24만9851t(매출액 411억원)으로 완도, 장흥, 고흥, 강진 등 전남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96%가 생산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순창 인계농공단지에 맥주공장

(주)제이앤씨 8월 준공

오는 8월 순창군 인계농공단지에서 맥주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순창군은 "맥주제조업을 하는 (주)제이앤씨(대표 장창훈)의 입주 요청에 따라 인계농공단지 분양을 결정, 25일 착공식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주)제이앤씨는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 오는 8월 준공목표로 부지 5091㎡에 연면적 2210㎡ 규모의 맥주공장을 지어 연간 400만병(500ml)을 생산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기존 양산 맥주와 차별화된 '웰빙' 맥주를 국내 최초로 출시해 명품 맥주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맥주공장 건립지로 익산, 장수 등 여러 지역을 물망에 올렸다가 순창의 좋은 물에 비해 순창을



입지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주)제이앤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다양한 업종 유치와 소규모 공장 유치 확대로 고용 창출, 취업 기회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입주를 결정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진적 고용창출과 다양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발 효과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테스트 베드' 유치 실패 후폭풍

도·일부 정치인 지적 내세우며 홍보하더니 최종 선정 탈락 책임 회피... 비난 여론 일어

전북도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테스트 베드'(Test Bed) 유치가 결국 무산되면서 연구사업 차질과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테스트 베드' 구축 태양광분야에 지난 8일 광주를 최종 선정했다.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험분석과 성능, 신재생 에너지 지원에 대한 비용 등 2013년까지 총 48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번 유치가 탈락이 되면서 그동안 부안군 하서면 일

원 35만6000㎡ 부지에 1194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전국 최초의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산업-홍보' 복합단지라 홍보했던 전북도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부안군에 조성 중인 연구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60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연간 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홍보해 왔고, 지난 3월에는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유치를 추진한다고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전북도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입주하는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구축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부족한 장비를 추가 확충,

적은 투자로 필수적인 테스트베드 구축이 가능한 장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부안군과 일부 정치인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설립을 자신 지역에 빼앗긴 것이 아니냐"며 "전북도나 정치인들이 좋은 것은 서로 자기만 챙기고 홍보해놓고 잘못은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가 있는 부안군 박명환 부군수는 "광주·전남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 주방 CCTV 공개 '안심음식점' 운영

전주시는 주방공개용 CCTV와 객석에 손님이 직접 달아먹을 수 있는 반찬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하는 '안심음식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청담(효자동), 한국집(전동), 현대옥본점(중화산동), 이레면옥(경원동), 어은골가든(중화산동), 양평해장국터(진북동), 평양면옥

(송천동), 만죽왕짜장(송천동), 전주순두부(산정동), 청마루빠다귀(금상동) 등 10개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통한 음식물 개선과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립도서관 '인문학사업 지원관' 선정

군산 시립도서관이 국립 중앙도서관 주최의 '길 위의 인문학사업 지원관'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100만원을 지원받아 이달부터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길과 삶의 공간을 찾아서'라는 주제

의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다. '2011 길 위의 인문학'사업은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도서관의 지원 및 사업 추진계획 의지 등을 심사해 최종 70개 공공도서관을 선정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제보건소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교실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0일까지 한 달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담배연기 없는 맑은 교정 학교사랑, 나의 건강!'이라는 슬로건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금

연 상담사가 흡연 학생을 1:1로 관리하며 니코틴 의존도검사, 폐포내 일산화탄소 측정 등 비롯해 자신의 흡연습관 태도를 파악해 '금연 클리닉'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문의(063-540-1346)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

정읍시 '사랑의 뒤주' 읍·면·동에 확대

정읍시 입암면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뒤주'가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돼 연중 운영된다. 시는 '사랑의 뒤주' 시책이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

체를 조성하고, 식량부족으로 결식하는 저소득층의 식사문제 해결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옛 도심 골목길 문화예술공간으로

생활형 공공디자인 사업 8억 투입 테마파크 조성

전주시 옛 도심의 골목길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돼 구도심에 있는 영화의 거리와 청소년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대상으로 국비 4억 원 등 8억원을 투입해 골목길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이들 거리의 건물담을 허물어 녹지와 휴식 공간을 만들고 직직한 건물벽에 디자인 개

념을 도입하게 된다. 또 골목길 골목길을 연결하고 테마파크 등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골목길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내 스토리텔링화,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영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골목길이 사람과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이자 관광객에게 주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인근의 객사, 한옥마을 등과 연계하면 뛰어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성현 기리는 석전대제

순창향교(전교 강병문)는 지난 11일 대성전에서 각급기관단체장, 유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현들의 학덕을 기리는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님을 비롯 5성(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과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다. <순창군 제공>